

간화선 수행

장휘옥 원장 · 김사업 부원장(오곡도 명상수련원)

“알면 뭐하나? 行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불교여성개발원 초청 특강

대학교수 자리를 버리고 경남 통영 앞바다의 작은 섬 오곡도(烏谷島)로 들어가 두 불교학자가 있다. 장휘옥 · 김사업 전 동국대 교수. 이들은 10년 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불교 교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오곡도에서 900여 회의 독참을 해가며 치열한 선(禪) 수행에 매진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은 11월 15일 오곡도 명상수련원을 운영하는 장휘옥 원장 · 김사업 부원장을 초청해 서울 조계사 대실법전에서 특강을 열었다. 두 사람은 간화선에 대한 소개와 선수행을 통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들려줬다. 다음은 강연의 요약이다.

정리=이어나 기자

수행은 우리자신을 '포맷' 하는 것 (김사업 부원장)

서양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다. 그는 한권의 책을 내고 3년 후 큰 시련과 난관에 봉착했다. 그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한 목사를 찾아가다.

신학자는 목사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었다니 목사는 “이 책에 모든 해답이 있다. 이 책을 읽고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면 구원될 길은 없다”며 한권의 책을 꺼냈다. 그 책은 바로 3년 전에 신학자가 펴낸 책이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다. 책을 아무리 잘 쓰고 무언가에 대해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잘 알고 있더라도 자기 것이 안된다면 안된다는 것이다. 알고 있다 해서 자기 생활의 일부가 되거나 자기 삶의 원동력이 되지는 못한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모 재벌 회장이 심각한 암에 걸렸다. 의사를 불러 살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의사가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재벌회장은 “종전의 스케줄대로 하겠다”며 사형선고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회사 일에 매진하면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다 세상을 떠났다.

우리도 이 재벌회장처럼 죽음을 맞이할 길 원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암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던 대로 살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삶에 매달리게 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본다.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가 묻는다. 머리로 다 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김사업 부원장은 ...

서울대 인문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대기업에 입사했으나 어렸을 적부터 가졌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을 회피할 수 없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동국대 불교학과에 학사 편입해 같은 과에서 유석사상을 세부 전공으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일본에 유학해 교토(京都)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로 재직했다. 공역 <Chontae Thought in Korean Buddhism>이 있다.

되지 않는다. 이것이 큰 문제다. 대학 강단을 떠나 오곡도라는 무인도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수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대로 생활이 되도록 내 일거수 일투족을 교리 그대로 생활 하는 것이다.

간화선을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현재 이참나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이 순간밖에 없다. 과거와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순간이 전부다. 현 순간이라는 것은 무슨데는 과거의 결과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데는 과거의 무수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편 이 순간은 앞으로의 우리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씨앗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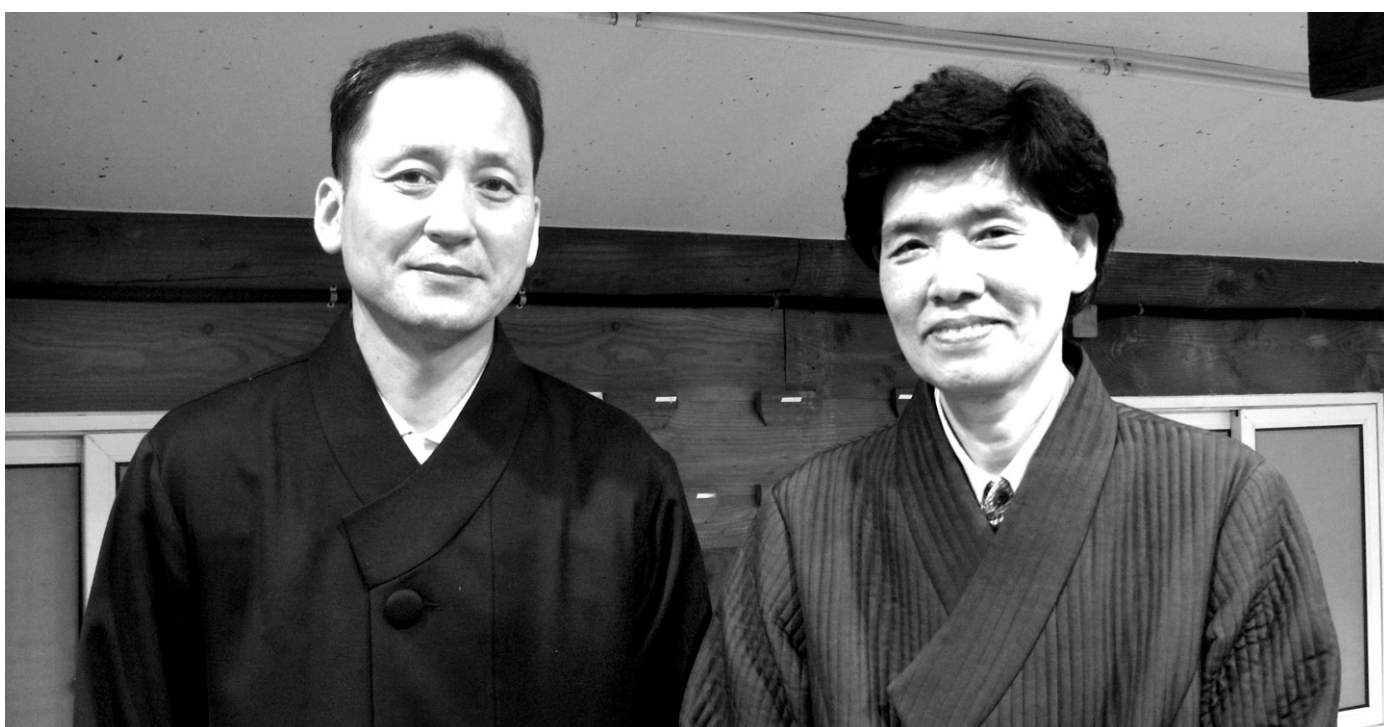
그럼 이 현재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중국의 유명한 선승가운데 대주해해(大珠慧海) 스님이 있다. 이분의 제자가 대주해해 스님에게 질문했다. “스님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생활합니까?”라고 질문하자, 스님은 “배고프면 밥먹고 졸리면 잔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제자가 질문을 했다. “제가 그럼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스님보다 더 많이 먹고 잠도 더 많이 자기 때문입니다.” 이에 스님이 다시 “나는 밥먹을 때는 밥만 먹고 잠잘때는 잠만 잔다”고 했다.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온갖 망상을 일으킨다. “나는 왜 이런 것을 먹는데 저 사람은 저런 걸 먹지” 등 밥을 먹으며 망상을 피운다. 그러나 대주해해 스님은 잠을 잘 때도 똑 잔다. 100% 잠만 자는 것이다. 현재 순간을 100%산다는 것이다.

오곡도는 일출 · 일몰 등 경치가 매우 멋진 곳이다. 경치를 볼 때면 다른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고 경치에 빨려 들어간다. 이때는 경치를 보는 나도 없고 경치도 없다. 경치와 내가 하나가 된 것이다. 돈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다. 다만 경치에 빠져드는 이 순간 밖에 없다. 대주해해 스님이 공양을 할 때는 바로 이런 심정으로 공양을 한 것이다.

간화선은 화두를 드는 것이다. 화두라는



오곡도 명상수련원 장휘옥 원장(우)과 김사업 부원장은 간화선 수행을 주제로 하는 일본 임제종에서 선을 수행했다. 일본 임제종 16대본산의 하나이며 중국의 간화선 전통을 그대로 계승해 수행하고 있는 고요가쿠지(向嶽寺) 전문 수행도량에서 스님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하안거와 동안거 수행을 여러 차례 했다. 이들은 청정하고 엄격한 수행으로 널리 알려진 미야마토 타이호오(雲本大峰) 대선사인 오가쿠지의 방장 스님으로부터 선로답을 통해 지도를 받았다.

‘밤 먹을때 밥만 먹자’ 100% 집중 간화선 수행은 스승 꼭 필요해 “온전한 삶의 기술을 배우자”

것은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처님이나 조사님이 남긴 말씀이나 언행이다. 간화선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스승의 지도가 꼭 있어야 한다. 간화선 입문서로 집에서 혼자 하는 경우가 많다.

학문은 독학이 가능할 지라도 선수행은 독학이 불가능하다. 스승이 꼭 필요하다. 올바른 스승 없이 가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마경(魔境)이라 해서 신비한 체험을 겪는다. 눈앞에 부처님이 보인다든지, 도깨비가 나타나 목을 조르는 등의 경험을 한다. 이 신비체험을 마치 깨달음의 전조로 여겨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좇게 되면 수행은 끝이다.

이런 것들을 스승이 잘 안내해줘야 한다. 우리는 화두를 머리로 풀려고 한다. 머리로 화두를 풀면 수행의 진척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을 혼자하게 되면 수행자 자신은 모른다. 스승의 눈으로 이런 길을 열어줘야 수행에 진척이 있다.

수행은 머리로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는 길만이 유일하다. 이래저래 말이 필요 없다. 물 한 컵을 두고 ‘이게 무슨 맛이다’라고 이야기 하면 머리로 상상만 가능할 뿐이지 실제로 마시지 않으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실제로 수행을 해야 한다.

컴퓨터를 생각해보자. 컴퓨터를 많이 하다보면 바이러스도 생기고 여러 프로그램

을 설치하다보면 프로그램끼리 충돌도 하고 속도도 느려진다. 그럴 때 포맷을 한다. 원상대로 돌려버린다. 필요 없는 것은 모두 지워진다. 컴퓨터 속도도 빨라지고 바이러스도 없어진다. 이처럼 선수행은 우리자신을 포맷 시키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는 스승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른다. 슬데없는 프로그램과 바이러스 등 자신만의 것을 포맷시키고 필요한 것만 놔두는 것이 선수행이다. 이렇게 되면 삶이 달라진다. 차를 마셔도 달라지고 길을 걸어도 달라진다.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진다.

선에 있으면 상황에 맞게 살기 때문에 과거의 나를 고집 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불만을 갖지 않는다.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차나 마시고 자연만을 즐기는 것을 수행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큰 오해다. 선은 열심히 현 순간을 100%열심히 하는 것이다.

100%를 실현 후회할 일이 있겠는가 (장휘옥 원장)

선(禪)이라는 것이 선방에 앉아 좌선만 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생활이 반겨주지 않아서...” “스승을 찾기 힘들어서...” 등이 핑계 제 핑계 대면 선을 할 수 없다. 전문적으로 해도 선이 되지 않는데 일상에서 선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은 오해다.

오곡도 수련원에 오는 사람들은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다양하다. 우리는 그들에게 “100% 사는 법을 배우라. 현실에 나가서 100% 성공하라” 이것을 가르친다.

간화선은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다 100% 온전한 삶을 살게 만드는 하나의 기술이다. 우리는 식사를 할 때 식사만 100% 하지 않고 잡념을 하면서 밥을 먹는다. 100% 밥만 먹어보자. 밥알과 반찬 하나하나를 맛보면 그 특이한 맛이 있다. 그것을 느끼는데 그 밥이 맛있다. 맛없다고 할 리가 있을까. 거기에 왜 분별이 들어가나. 여러분이 사는데 저 사람은 밍다. 좋다 하는 것도 자기 취향이다. 그런 의식을 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의 눈이 돼야 한다.

수련원에서는 100% 온전히 집중하는 법을 배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 부자가 돼라는 것을 가르친다. 무소유는 이 때 필요한 것이다. 안 갖고 일을 안해서 벌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벌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돈이 필요하면 기대하지 않고 열심히 그 일을 100% 하는 것이다. 열심히 안하면서 기대를 바라한다는 것은 속된말로 도둑놈이다. 내가 열심히 살면 실패가 오지도 않지만 실패를 해도 후회가 없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一日不作, 一日不食]”라는 말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일을 할 때 쓸데없는 잡념을 하지 말고 해보라는 것이다. 나는 경감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야 성공한다. 숲에 숲탄 듯 물에 물탄 듯 하지 말란 이야기다. 목숨 걸고 해 보십시오. 인생에 났으면 죽을 때까지 움직이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기어서라도 뭘 해야 되지 않는가.

장휘옥 원장은 ...

부산대 사범대학 화학과를 나왔다. 같은 과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과학보다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동국대 불교학과에 학사 편입해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도쿄(東京)대학 대학원 인문과학연구원에서 화엄사상으로 석사·박사학위를 받은 뒤,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불교학회 이사, 한국정토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불교학개론 강의실 1·2> <해동고승전 연구> 등 10여 권의 책과 <화엄경 이야기> <대승기신론 이야기> 등 다수의 번역서가 있다.

선 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줄 아는가? 생활 속에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닦아야 한다. 기초도 닦지 않고 모양만 흉내 내고 있으면 그것도 도둑놈 심보다. 투자도 하지 않고 얻었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다.

수행하다 보면 인간은 모두 똑똑하다는 것을 느낀다.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것 하나 없이 인간은 다 똑같다. 움직여야 된다는 것, 그냥 어디서나 열심히 사는 모습, 그게 바로 선이다. 오곡도 수련원에서는 오신체를 다 먹는다. 마늘, 양파 그 몸에 좋은 것을 왜 먹지 않는가. 오신체를 먹는다는 것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이곳은 쉼 날이 없다. 열심히 살기만 한다. 열심히 살다 보면 남 땀ભ은 일도 번뇌도 없다. 100%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고 비교할 것을 갖고 오지 않는데 무엇이 괴롭겠나.

100% 사는 것이 연속되면 ‘내가 괴롭다, 괴롭지 않다’ 하는 분별과 망상이 끼어들 틈이 없다. 수련원에서 일은 찾아서 하는 것이다. 그냥 주어진 일, 할 일이 있으면 ‘단지’ 할 뿐이다. ‘단지’라는 말이 선에서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주어진 일을 단지 하고 있다가 바다와 하늘도 보고 저녁노을 보면서 차를 마셔보자.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타고났나’ 하면서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습관도 생긴다. 매사가 즐거운 것이다.

매사가 즐거운 것이다. 나쁜 쪽으로 보지도 않고 내 성향이 그렇게 바뀌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 연세 드신 분은 수행을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수행하기 위해 삶을 저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종교가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삶이 먼저다.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벌되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 시대에는 치열하게 부딪쳐야 된다. 험령하게 좌선한다고 앉아있으면 그건 망하는 길이다. 출가만 하고 마음은 변하지 않는 데. 순간의 상태에서 깨어있어야 한다.

3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3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정경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약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수정기공 특강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 모집인원 : 매회 8명 이내
* 연 락 처 : 010-3463-7806
*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